

## 11. 새로운 싱글 The New Singleness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하셨다(창2:24). 그 때 이후로 사람들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게 되었다.

지난 수 세기 동안 결혼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각각 다르게 발달되었다. 그러나 지난 수 천 년 동안 서구 문화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누구’와 ‘언제’ 결혼하느냐의 문제이다. 겨우 지난 두 세기 동안 이 문제들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싱글의 개념이 생겨났다.

### 구약 시대

400년 전에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레위기 19장29절에 “네 딸을 팔아 창녀로 만들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다. NIV성경의 동일한 절에서 “네 딸을 창녀로 만들어 타락시키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탈무드는 구약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다섯 권을 중심으로 해당 구절을 강조한다. 수 세기 전에 이 구절에 대해서 논한 유태인 랍비의 말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아키바 랍비 (R. Akiba): “사춘기가 훨씬 지난 딸의 결혼을 늦추는 것에 대한 것이다” 주석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춘기가 시작되고 난 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정숙하지 못한 여자가 된다.”(산헤드린 76a)
- 카나 랍비 (R. Kahna):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가난한 사람은 미묘하게 사악한 자이며, 자신의 딸의 결혼을 늦추는 자이다.”(산헤드린 76a).
- 아바에 랍비 (R. Abaye): “어떤 가난한 사람이 미묘하게 사악한가? 자신의 딸의 결혼을 늦추는 자이다.”(산헤드린 76b)
- 그리고 나서 “선한 사람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사춘기가 되기 전에 결혼을 시키는 자이다.”라고 언급했다(산헤드린 76b).

이와 같이 탈무드 시대 문화에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첫째, 부모는 자녀의 배우자를 찾아야 했다. 둘째, 이상적인 결혼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성적으로 조숙해졌을 때 바로 이루어져야 했다. 결혼은 주선을 통해, 사춘기가 되면 성사됐다.

고대 히브리 법에 따르면 결혼의 최소 연령은 여성의 경우 12세, 남성의 경우 13세이다. 여성의 경우 12세에 성인식 바 미츠바(bat mitzvah)를 하는 때가 결혼의 최소 연령 기준으로 정해졌고, 남성의 경우는 13세에 성인식 바르 미츠바(bar mitzvah)를 하고 난 후가 결혼 최소 연령 기준으로 정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12세, 13세에 결혼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찾아 결혼을 시키고자하면 가능했다.

### 신약 시대

신약 도입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부모는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알 수 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약속’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점을 미루어 보아서 사춘기를 지났음을 알 수 있다(마 1:24). 마리아는 당시 10대였을 것이며, 부모가 결혼을 주선했을 것이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남성은 14세에, 여성은 12세에 결혼이 가능했다. 로마에서는 딸이 만13세가 되면, 부모는 딸의 남편감을 찾기 시작했다. 19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노처녀’ 취급 받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이와 비슷한 원칙을 따랐다. 초기 중세시대 교회는 사춘기의 남자는 결혼을 하던지, 혹은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후 중세 교회는 남자는 13.5세 그리고 여자는 12.5세에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영국

중매결혼은 16세기 영국에서 일반적이었다. 법적 최소 결혼 연령은 여전히 12세, 14세였지만 많은 경우 결혼이 그 이전에 계획되었다.

- “그녀는 그에 대해서 환상을 갖거나 특별하게 호의를 베풀 수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몰랐다고 하지만 그녀의 부모에 따르면, 그녀는 친구들의 생각에 따라 결혼했다(조지 헐스(George Hulse)와 이혼하려는 엘리자베스 헐스(Elizabeth Hulse). (조지 헐스와 엘리자베스 헐스는 각각 11세, 4세에 결혼했음)
- “약혼녀 마가렛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미성년자 때 이미 결정된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 (롤랜드 더튼(Roland Dutton)이 9세 때, 마가렛 스탠리(Margaret Stanley)가 5세 때 양가가 합의한 결혼을 거부함).

위에 언급된 결혼은 중매결혼이지 강제 결혼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어릴 때 약혼할 수 있지만, 아이가 10세가 되기 전에 파혼이 가능하고, 그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10-12세가 되어서 파혼을 하게 되면 부모는 벌금을 내야 한다. ‘어린이’가 12세가 넘어서 파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 그 ‘어린이’ 모두에게 벌금이 징수될 수 있다. 12세가 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파혼 시 벌금이 징수된다.

## 미국 식민지 시대

법적 최소 결혼 연령은 여전히 12세, 14세였다. 이는 미국 역사 속에서도 엇볼 수 있다.

- 1704년 코네티컷주: “일반적으로 결혼을 일찍 한다. 남자들은 대개 20세 이전에 결혼을 한다.”
- 켄터키 개척시대: “소년, 소녀가 각각 16세, 14세에 결혼을 하고, 이는 온 마을의 축제와도 같다”
-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소녀들은 결혼을 너무 일찍 해서 27세에 할머니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미국 식민지 시대에 청교도들은 모든 사람이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가능한 자녀들을 빨리 결혼 시키는 것이 혼전 관계 및 성적 도착을 방지하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했다. 청교도들은 자녀에게 혼전순결 서약으로 ‘웁아매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청교도인 토마스 코벳(Thomas Cobbett)은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린이들은 ‘비자연적인 오염’의 죄를 짓게 되고, 다른 더러운 행위를 은밀히 하며, 육체의 열매를 살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 새로운 싱글의 삶

수천 년 동안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찾고, 사춘기에 결혼을 주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사이에 서구문화는 큰 변화를 겪었다.

### 세 개의 변화

세 개의 변화가 독신과 연관된 두 개의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1882년 의회는 여성의 최소 결혼 연령을 12세에서 13세로 올렸다 (16세로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했음). 그러나 1885년 8월 14일 의회는 런던구세군의 압박으로 13세에서 16세로 올렸다. 1926년 웨스터마크(Westermark)는 사춘기에 결혼을 하는 인종은 ‘미개하다’라고 기록했다. 1934년 굿셀(Goodsell)은 12세, 14세에 결혼을 허용하는 법령은 ‘계몽 국가’에서 사라져야 하며, 이와 같은 법령은 ‘사회적 어리석음’이라고 했다. 그 시대의 국가들은 대체로 여성과 남성이 각각 18세, 21세에 결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미개하고, 비계몽적이며, 사회적 어리석음이라고 여겨지게 되었다.

둘째, 1795년과 1981년 사이에 여성 220,037명의 초경 연령에 관한 218개 연구의 요약본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간되었다. 첫 생리 주기는 사춘기 즈음에 시작된다. 연구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여성의 사춘기 평균 연령은 16세에서 12세로 바뀌었다. 남성의 사춘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 예를 들어 바흐가 라이프치히에서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했을 때, 합창단원들은 17세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소프라노를 담당했다. 오늘날에는 14세면 목소리가 변한다. 결혼 연령을 6-7세 정도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을 시점에 사춘기가 과거 보다는 3-4세 정도 일찍 찾아왔다.

셋째,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있는 법적인 기록과 생리학상의 데이터가 없지만, 중매결혼이 같은 기간 동안 크게 줄어들었다. 미국 식민지 시대에 중매결혼을 많이 했으나, 20세기 중반에는 중매결혼이 흔치 않은 것으로 바뀌었다.

### 두 개의 결과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사이에 일어난 변화가 싱글의 삶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사람들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일정 기간 싱글로 살아야 한다. 사춘기에 결혼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우정, 성생활, 외로움 등 모든 관계에 대한 사회적 시사점을 갖는다.

둘째,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배우자 때문에, 혹은 결혼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부모와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중매결혼에 대한 불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창 3:12).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자신이 결혼을 못했을 경우, 배우자를 찾아 주지 않거나 혼수를 마련해주지 않은 부모를 탓할 수 있었다. 창세기에서 라반은 레아가 결혼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원망할까 봐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라반은 결혼식을 올리고, 밤이 되자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의 침대로 보냈다(창29:22-30).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결혼이나 싱글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탓 할 수 없고,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나 싱글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http://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 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http://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